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존경하는 KLPGA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번호 469번 남민지입니다.

저는 2006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하여 2007~2013년까지 KLPGA 정규투어에서 7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경험과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시스템이 있고 아닌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 각자에 맞는 목표와 KPI를 분석하고 도출하여 그에 맞는 매뉴얼 교육을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늘 세계 넘버원 KLPGA 선수들이 냉정한 프로세계에서 은퇴한 후 직업적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은퇴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현 투어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골프산업 분야에 대한 도전을 고민 중이신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투어 생활 은퇴 후 2년간 메인스폰서였던 OK 저축은행에서 골프대회 담당 및 골프장학생 관리를 맡아 일했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회사의 골프 행사를 2년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골프산업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껴 현재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5년째 선수 매니지먼트팀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선수의 스폰서십 세일즈, 체결뿐만 아니라 KLPGA 정규투어 대회 운영에 참여하여 특히 기자 관리를 단독으로 맡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도 연이 닿아 골프 프로그램을 기획, 세일즈하고, SBS골프 채널에서 <KLPGA 정규투어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KLPGA 투어 속 이모저모를 주제로 진행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몸으로 부딪쳤습니다. 성과를 낸 일도 많았지만 실패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 적성에 맞는 일들을 디자인 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시간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그러한 욕심으로 이번 이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저의 공약은 회원 교육입니다.

제가 수많은 일을 진행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투어활동, 레슨, 행사진행 등 프로의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됐을 때 더욱 매끄럽게 운영됩니다. 때문에 프로의 업무 형태는 조언을 받고 끝나는 식이 아닌, 업무로써 인정을 받고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두번째 저의 공약은 직업의 확장성 입니다.

저의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회원 여러분의 도약의 발판으로 쓰인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얻은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골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크고 작은 기업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은퇴 후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각자에게 맞는 시스템을 매뉴얼화 하여 우리 회원들의 직업적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회원들의 역량은 이미 충분합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회원들을 협회의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준비된 역량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위치를 보장 받을 수 있고, 회원도 기업도 KLPGA를 계속해서 찾고 의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저의 공약은 소통입니다.

선수들의 애로 사항, 주최사, 대행사, 방송 미디어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 협회 시각으로 필요한 분야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소통의 창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의 길로 접어든 미래가 밝은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 새로운 분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 산업이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성 명 :

남민지 (인)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